

2011.9.14

포스트 카다피 시대, MENA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연구실

서상현

posco
포스코경영연구소

Executive Summary

포스트 카다피 시대, MENA에 미치는 영향

□ 튀니지에서 촉발된 민주화 혁명이 리비아로 전이되면서 8월 23일, 리비아 카다피 정권 붕괴

-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한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리비아와 정치, 경제 환경이 유사한 다른 MENA 지역으로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 높아짐
- 이미 튀니지, 시리아, 예멘, 이란, 사우디, 알제리, 모로코 등지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인 ‘재스민 혁명’ 발생
- 한편 리비아의 장기 내전으로 MENA 지역에서의 민주화 시위가 약화되었으나 리비아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 제기

□ 리비아 정권교체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대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시위가 아닌 외세 지원과 부족간의 갈등으로 물리적 충돌에 의한 정권교체

- 리비아 시민 혁명의 원인은 카다피의 장기집권, 부정부패, 30%에 이르는 빈곤층, 족벌체제 정치시스템 등에 의한 국민들의 불만 누적 때문
- 아프리카 최대 원유 보유국이자, 일산(日産) 177만 배럴 생산능력을 가진 리비아는 현재 원유 생산의 85%를 유럽으로 수출 중. 향후 원유를 둘러싼 서방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
- 한편 서방국의 급격한 영향력 증가로 아랍에서 반(反)서방 분위기 고조 우려와 원유수입배분을 둘러싼 부족간의 이권 다툼 등이 발생할 가능성

□ 리비아의 정권교체로 단기적으로는 MENA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화 확산으로 투명한 정부 수립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

- 이집트, 리비아 등 혁명이 완료된 국가 중심으로 재건 사업 프로젝트 발주
- 리비아는 국가 재건에 1,2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집트는 100만호 주택건설 사업 추진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CSR 사업 병행 추진이 바람직



I. 재스민 혁명, MENA 지역으로 민주화 전이	1
II. 카다피 정권 붕괴와 의미	2
III. 리비아 정권교체가 MENA에 미치는 영향	5
IV. 결론 및 시사점	7

I. 재스민 혁명, MENA¹ 지역으로 민주화 전이

□ 지난해 12월, 튀니지의 한 노점상이 분신하면서 촉발된 재스민 혁명 여파가 이집트, 리비아까지 이어져 리비아의 정권교체 성공

- 이들 국가들은 부정부패, 장기집권, 권력세습, 빈부격차, 高실업 등 구조적인 정치, 경제 문제 상존
- 하지만 널리 보급된 SNS로 언론 통제에서 벗어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민주화 운동이 조직화됨

〈 MENA 지역 국별 SNS 보급률(단위 천명) 및 실업률(%) 〉

국가	인터넷 보급률	소셜미디어 보급		실업률	시위
		사용인구	보급률		
이집트	25.0	513	6.5	9.7	종료
튀니지	33.1		20.3	13.3	종료
바레인	56.8	241	33.6	15.0	有
알제리	13.6	1,510	4.4	9.9	有
예 멘	10.0	-	-	35.0	有
모로코	8.8	2,780	8.8	9.8	소규모

- 특히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젊은 층의 의식개혁을 통한 민주화 변화 주도로, 기존의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아래로부터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여파가 지속될 전망

□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 성공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유사한 MENA 국가들로 민주화 시위 확산

- 알자사드 정권²이 41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 소수인 시아파(14%)가 다수인 수니파(74%)를 통치하고 있는데,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이후 수니파 주도로 반정부 시위 확산
- 3월 시위 이후, 최소 2,200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AP통신), 알자사드 대통령은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 중
- 한편 예멘도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 중인데, 33년간 장기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이 유력한 상태
- 이밖에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발생

¹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는 정치, 문화가 유사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칭

² 하페즈 알자사드가 1970년에서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 그 후 아들 바샤르 알자사드가 뒤를 이어 집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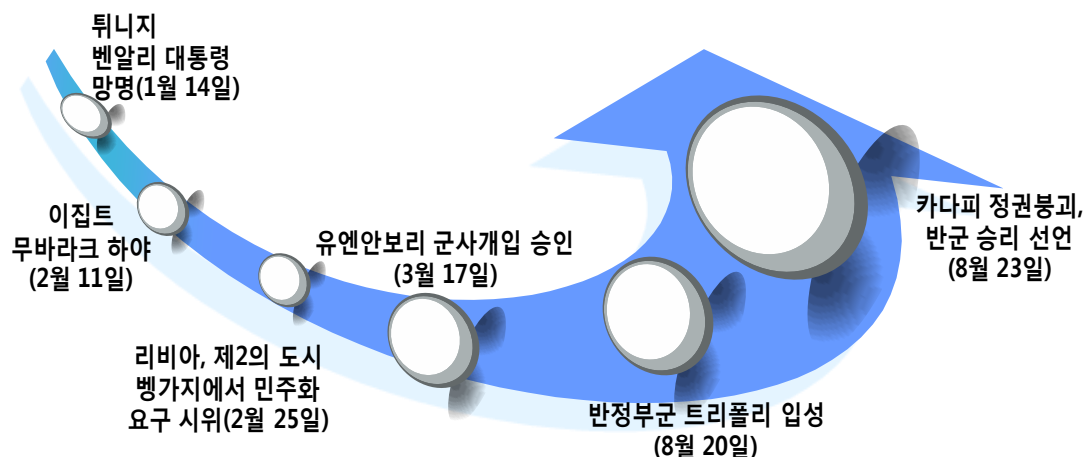
II. 카다피 정권 붕괴와 의미

1. 카다피 정권 붕괴 과정

□ 리비아의 반정부군이 '인어작전'을 통해 8월 20일 수도 트리폴리에 입성하면서 카다피 정권 붕괴

-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영향으로 2월 25일,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첫 시위 발생
 - 카다피 정부군의 무력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 확산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군이 형성되고, 이는 반정부 세력으로 세력을 넓혀 본격적으로 카다피 정부군에 맞서게 됨
- 3월 17일,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고 NATO군이 리비아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전세 역전, 반군이 정부군을 압박하기 시작
 - 8월 17일, 반군은 트리폴리 길목인 항구 도시 자위야를 장악.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 이후 8월 23일, 반정부군이 카다피의 핵심 거점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를 함락하면서 승리 선언

< 리비아 민주화 혁명 전개과정 >



○ 카다피 정권 붕괴의 특징은 튀니지, 이집트와 같이 시민 혁명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닌 NATO 등 외부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족간의 갈등에 의한 내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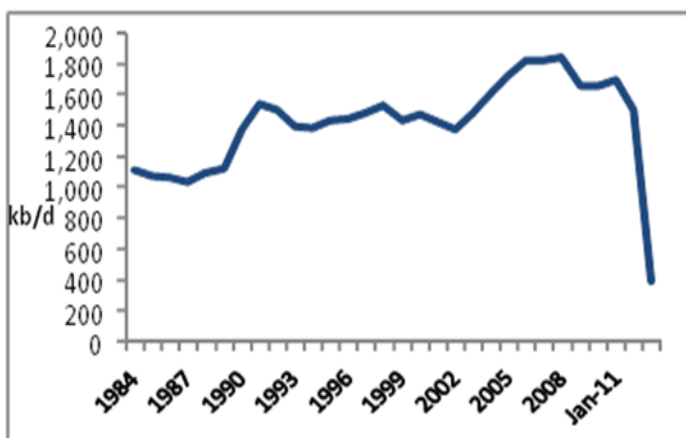
- 전세가 불리하던 반군에 막강한 화력을 가진 NATO군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카다피 정부군 무력화
- 미국보다는 기존 식민지 기득권을 노리는 이탈리아나 석유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향후 정국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국(440억 배럴)이며, 내전 발생 이전까지 일산(日産) 최고 177만 배럴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3위 원유 생산국

- 현재는 내전 여파로 하루 4~6만 배럴 생산
- 원유 생산의 85%를 유럽으로 수출 중, 초경질유로 유럽에서 선호하는 품질

〈 리비아 원유 생산 현황 〉



〈 리비아 원유 주요 수출국 〉

수출지역	kb/d
이태리	370
프랑스	210
독일	145
스페인	140
기타 유럽	215
기타	190
총계	1,270

출처: Simmons & Company, IEA, Energy Intelligence

2. 리비아, 신정부의 노선 변화와 경제 재건 노력

□ 서방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아프리카에 친서방 벨트 형성 예상

○ 반서방 노선에서 친서방 노선으로 선회할 전망

-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시절 대표적인 반서방국이었으며,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아프리카 맹주 역할 자처
- 정권교체 이후, 이집트와 함께 북아프리카에 친서방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국가 재건에 있어 서방국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

○ 정권교체 기여도에 따라 서방국들의 영향력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카다피 정권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카타르 등은 리비아 국가 재건에 있어 수혜국으로 등장 전망
- 반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친카다피 성향으로 기존 리비아 사업에 영향을 받을 전망

〈 주요 국가별 리비아 정권교체에 따른 전망 〉

미국	친미정권 수립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 예상
이태리	자국 소비 석유 가스의 1/3 을 리비아산에 의존, 기존 계약 사수 노력
프랑스	‘포스트 카다피’ 개입에 가장 적극적 (내전 초기부터 시민군 지원)
영국	프랑스와 함께 NATO 군 통해 시민군 지원
중국/러시아	NATO 공습 반대하여 입지 좁음

□ 신정부, 경제 복구에 최우선을 둘 것이나 불안정 요소 잠재

○ 빈부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석유 증산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내전으로 인해 현 1일 4~6만 배럴 생산으로 축소된 원유 생산량을 2011년 말까지 60만 배럴까지 증산할 전망이며, 향후 2012년 말까지 160만 배럴 생산 예상
- 미국 내 동결된 리비아 자산(약 300억 달러)을 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

□ 그러나 부족간 갈등 및 前 정권 추종 세력들의 잔존으로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

-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과도위원회의 정체성 문제가 당분간 논란될 듯
 - 140여 개 부족 중 기득권 부족(카다파, 마가하리)과 반정부군 지지 부족(최대 종족인 와르팔라 등)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상존
 - 특히 기득권 부족에 대한 숙청이 진행될 경우 제2 내전이 발발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리비아가 종족·종파간 분열을 보이고 있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만약 서방국들의 과도한 석유 이권 개입과 아랍 국민들의 반서방 정서가 표출된다면, 친서방 정책의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 NATO 회원국 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등 서방국들의 석유 이권 다툼 예상
- ☞ “리비아 미래의 복병은 몰락한 카다피가 아니라 부족 세력과 이슬람주의자들이다.”(무함마드 아피프 교수)

Ⅲ. 리비아 정권교체가 MENA에 미치는 영향

□ 북아프리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민주화 혁명에 의한 리비아의 정권교체가 인근 알제리 및 모로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알제리는 테러에 의한 국가안보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집트 사태 이후 대통령이 민주화 조치 이행
 - 모로코는 절대왕국이라는 특성때문에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높고, 이집트 사태 이후 국왕 권한의 상당한 부분을 총리에게 이임하는 민주화 조치 이행

○ 그러나 알제리의 경우,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 리비아 민주화 혁명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아프리카 4위 원유 생산국인 알제리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경우, 국제 원유가가 급등할 전망
- 리비아와 알제리가 석유 생산을 중단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지난 2월 노무라홀딩스)
- 알제리는 현재 일산(日産) 1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 시리아, 예멘 등 일부 중동 국가들에서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지속될 전망

○ 중동 민주화 운동의 본질적 원인과 배경은 중동 대중들의 정치, 경제적 불만의 표출

- 따라서 군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쿠데타 또는 서방의 지원을 업은 일부 세력에 의한 권력 찬탈 시도 등과 같은 형태보다는 아랍판 프랑스 혁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EIU에서 조사한 MENA 지역의 불안정 지수(Shoe-Thrower's Index)³는 지금까지의 소요발생 국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요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음

〈 MENA 지역의 불안정 지수 〉

국명	통치자 (나이, 집권년도)	불안정 지수*	부패순위 (178개국 중)
예멘	살리흐 (64, 1978)	86.9	146
리비아	카다피 (68, 1969)	71	146
이집트	무바라크 (82, 1981)	67.6	98
시리아	바샤르 (45, 2000)	67.3	127
사우디	K.압둘라 (87, 2005)	52.8	50
알제리	부테플리카 (73, 1999)	51.3	105
요르단	K.압둘라2세 (49, 1999)	50.3	50
튀니지	벤 알리 (74, 1987)	49.4	59
모로코	K.무함마드VI(47, 1999)	48.2	85
바레인	K. 하마드 (61, 1999)	37.7	48
이란	아흐마디네자드(54, 2005)	n/a	146

- 특히 순위가 높은 국가 중 공화정 국가인 예멘, 시리아에서 정권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판단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왕정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시위 가능성이 낮을 전망

³ EIU, Shoe-Thrower's Index from the Economist,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0 corruption index (higher number = greater corruption)

IV. 결론 및 시사점

□ MENA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 및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서방 및 반서방 대결의 장

- 서방국들과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일부 중동 국가들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
 - MENA 지역은 전세계 원유 생산의 35.2%, 매장량은 61.1% 차지
 -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아덴만은 지중해,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바다의 실크로드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

□ 리비아의 민주화 혁명에 의해 일부 MENA 국가들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급격한 MENA 지역의 정세 변화는 없을 전망

- MENA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행 로드맵 제시 등 정치 개혁과 빈부격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들을 수용
 - 사우디아라비아,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 선거 실시 약속
 - 요르단,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라 내각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구성하는 민주화 조치

□ 그러나, 최악의 경우, 시리아에서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감행 시 새로운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 상존

- 시리아는 세계 최대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서방국의 리비아와 같은 군사 행동은 취하기 어려운 실정
- 이란은 시리아의 맹방으로 정권 전복이 발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전망

□ 단기적으로 정세 불안은 지속되겠지만, MENA 지역 민주화 시위는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도 증가할 전망

- MENA 지역 정치 민주화 추진으로 제도개선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시장 진출 가능성 상승 전망
-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소비 확대에 의한 구매력 증대 예상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MENA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또한 인도적 지원 등 CSR 확대를 통해 기업이미지 향상도 필요

서상현 (e-mail:unisa21@posri.re.kr)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